

어느 날 이오니아 지방(지금의 에게 해 연안)의 한 어부가 그물에 건진 물고기를 끌어 올려 보니 그물 속에 황금 트로피가 들어 있었다. 그리이스인들이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는 트로피였다.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라 여긴 어부는 밀레토스(밀레토스는 당시 그리이스의 식민지 도시들 가운데 가장 번창했던 항구도

B.C. 640-550 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에게 전달하자는데 동의하였다. 탈레스는 못받겠다고 극구 사양하였으나, 강제로 떠맡은 그는 자신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에게 트로피를 다시 보내버렸다. 그랬더니 그 사람 역시 트로피를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냈고, 이렇게 몇 사람의 손을 거치다가 마침내 아테네의 솔론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 하지만 솔론 역시 “아폴론 신이야말로 가장 뛰어나다”면서 이 물건을 아폴론에게 헌납하게 된다.

## 탈레스 이야기

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워낙 번창하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느라 근처의 숲에서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는 통에, 산에 있는 흙이 점점 바다를 메꾸게 되어 지금은 중동 지방의 사막 한가운데 파묻힌 전설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 제 아무리 철학의 근원지라 하더라도 자연파괴의 벌은 피하지 못하는 법이다.) 시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여기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리이스 본토의 델포이 신전에 있는 아폴론 신에게 의뢰를 하였다. 그러자 아폴론은 “이 물건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의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황금 트로피를 차례차례 받은 사람들이 기원전 6·7세기 고대 그리이스에서 일곱명의 현자(賢者)로 추앙받던 이들이다. 당시 이들은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귀를 델포이 신전에 지혜의 제물로서 바쳤는데,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도 강조하다 보니 그 말은 곧 소크라테스의 것이라고 후세에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 일곱명의 현자들 가운데 서양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은 탈레스이다. 탈레스는 이집트에서 천문학과 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정치적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그의 전공인 천문학을 활용하여 기원전 585년 5월 28일의 개기일식을 예측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러나 탈레스의 고상한 모습만 전해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밀레토스의 시민들은 논의 끝에 이 황금 트로피를 탈레스(그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는 확실하지 않다. B.C. 624-548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 운 형**  
(경기대 교수·철학)

그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어느 별이 빛나는 밤, 탈레스는 하녀를 데리고 별을 관측하기 위해 하늘을 쳐다보면서 걷고 있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탈레스가 별에 온 정신을 쏟으면서 걷는 동안 하녀는 말없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하녀가 얼마쯤을 가다가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 뒤돌아 보니 자기 뒤에 있어야 할 탈레스가 보이질 않는다. 이상하게 여긴 하녀가 오던 길을 되돌아 가자, 웅덩이 밑에서 탈레스가 꺼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하녀는 탈레스를 도와주면서 “주인님, 주인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일이나 발앞에 있는 일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늘의 일을 알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비아냥거렸다. 이 말 한마디는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탈레스의 현실감각을 깨우고 말았다.

게다가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탈레스의 면전에서 “철학해서 뭐하오? 철학하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오죽하면 쓸만한 집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시오?”라고 업신여긴 일도 생겼다. 탈레스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탈레스가 그 후 계속 하늘을 관찰해 보니 내년 올리브 농사가

대풍작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침 때는 겨울이라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짜는 기계를 놀리고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탈레스는 은행 대출을 받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를 헐값에 사모으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까? 이듬해 여름이 되어 올리브가 대풍작이 되자 사람들은 기름짜는 기계를 너도 나도 필요로 했고, 탈레스는 그것을 무지하게 비싼 값에 되팔아 먹은 것이다. 이처럼 탈레스는 서양철학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매점매석을 몸소 실천해 보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돈을 헤아리면서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폐돈을 벌 수 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돈에 신경을 안 쓸 뿐이야.”

이러한 이야기만 들으면 “대체 탈레스가 철학에서 왜 중요한가?” 그리고 “분명히 탈레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탈레스를 서양철학의 시조로 삼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탈레스가 ‘물’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석연치 않다. 어디 탈레스만 물을 찾았겠는가? 더구나 탈레스가 직접 쓴 어떠한 기록도 전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빌려 간접화법으로 우리에게 전해 오고 있는 것이 물에 관한 탈레스의 주장 전부가 아니던가?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형이상학」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철학에서 탈레스의 의의는 그가 만물의 구성 성분을 몰로서 분석했다는 데에서 찾지 않는다. 그를 서양철학의 시조로 삼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자연의 비밀을 자연자체 속에서 찾으려 했다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탈레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탈레스의 저서가 전해 오지 않는 탓에 그가 왜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만물의 영양소가 물이라든가, 만물의 씨앗들은 수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점에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이다. 심지어 물의 원소기호가 H<sub>2</sub>O라는 점에 착안하여, 어떠한 사물이고 수소없는 사물은 없는데, 탈레스 당시에는 수소라는 표현이 없었으니까 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우리는 밀레토스 항구에 서서 흰수염을 날리면서 파아란 바다를 바라보는 탈레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탈레스는 넘실거리는 파도를 향해 묻는다. “대체 만물은 무엇으로부터 생성되어 무엇을

향해 소멸되어가고 있는가?” 이 물음을 화두삼아 깊은 사색 끝에 드디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것을 깨우쳤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덕을 중시하는 철학자들은 물의 상징성에 주목한다. 가령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잘되라고 달님에게 손모아 기

도하는 어머니의 정화수 한잔이라든가, 세례를 줄 때의 성수 등에서처럼 물이란 순결함, 성스러움, 더러운 것을 씻겨 냄 등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등 세계의 어느나라이고 간에 이승과 저승을 말하면서 그 중간에 물이나 강을

설정하지 않는 예가 없다. 이승에서의 죄를 물로 씻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도덕적인 정화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다.



탈레스(B.C.624-548?)